

<AsiaNet>세계 최초의 삼투 전력 프로토타입, 오늘 개통

(오늘로 11월 24일 AsiaNet=연합뉴스) Statkraft가 오늘 세계 최초의 삼투 전력 프로토타입을 개통했다. 오늘 열린 공식 개통식에는 Mette-Marit 노르웨이 왕세자가 참석했다.

이 프로토타입은 민물이 바닷물을 만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삼투 전력(<http://www.statkraft.com/energy-sources/osmotic-power/>)은 Statkraft가 10년 동안 연구해온 재생 에너지원으로서, 배출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인 전력 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Statkraft의 Bard Mikkelsen 최고경영자(CEO) 겸 사장은 “이 신기술은 민물과 바닷물은 혼합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다”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미래가 밝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Terje Riis-Johansen 노르웨이 석유 및 에너지 장관은 “삼투 전력 프로토타입을 개통한 Statkraft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있어 노르웨이 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에 아주 흐뭇하다”고 밝혔다.

WWF Norway의 Rasmus Hansson 최고경영자(CEO)는 “Statkraft와 같은 주요 기업이 새로운 재생가능한 솔루션에 투자하는 걸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Statkraft와의 협력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투 전력 프로토타입은 전력 생산 역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테스트 및 개발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궁극적으로 몇 년 안에 상업적인 삼투 전력 발전소를 짓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전 세계의 잠재적인 삼투 전력(<http://www.statkraft.com/energy-sources/osmotic-power/>)은 연간 1,600-1,700 TWh인데, 이는 EU의 총 전력 생산 중 50%에 해당하는 양이다. 삼투 전력 발전소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지을 수 있다. 소음이나 오염의 주범인 배출 가스를 발생시키지도 않으며, 산업 건물 지하실과 같은 기존 산업 시설에도 통합될 수 있다.

Statkraft는 1997년부터 삼투 전력을 연구해왔으며, 여러 나라의 R&D 기관과 힘을 합쳐 이 프로토타입을 개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굉장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으며, 개통식에는 여러 외국贵宾들이 참석했다.

Statkraft는 유럽 최대의 재생가능한 에너지 기업으로서, 수력발전, 풍력 발전, 가스 발전 및 지역 난방을 개발 및 제공한다. 더불어 유럽의 전력 교환 부문에서 주요 기업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 외에도 해양 에너지, 삼투 전력, 태양열 및 여러 혁신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2008년 Statkraft의 총 영업소득은 31억 유로였으며, 현재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3,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 대변인, Knut Fjordingstad, 휴대폰 +47-901-86-310
- 국제 정보 책임자, Torbjorn Steen, 휴대폰 +47-911-66-888
- 커뮤니케이션 자문, Stefan Okstveit, 휴대폰 +47-975-78-299

편집자 주:

고해상도 이미지는 아래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lickr.com/photos/44290727@N07/sets/>

연락처:

<http://www.statkraft.com>

자료제공: Statkraft